

EBSi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정영식[†]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EBS 수능 강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EBS의 협조를 얻어 EBS 수능 강의 시스템에 실제로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즉, 강좌 개설 현황이나 강사 배치 현황, 회원 현황 등을 분석하였고, 강좌 이용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설 온라인 학원의 수강료와 비교하여 EBS 수능 강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였다. 아울러, 게시판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상담원 배치의 적절성을 진단하였으며, 2008년 새 대입제도 도입에 따른 EBS의 대응 방안을 진단하기 위해 논술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EBS 수능 강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키워드 :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강의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s of the EBSi

Young-Sik Jeong[†]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 objective analysis of the EBS lecture program for the national scholastic achievement examination (NSAE) that started from April 1, 2004. To this end, it obtained and analyzed related data which are archived in the EBS NSAE lecture system under the assistance from EBS. More specifically, it analyzed the practices of lecturer placement and student members. Also, the practices of use of lectures were analyzed by years, and the economical value from the use of the EBS NSAE lecture program was estimat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tuitions for private online institutes. In addition, this study diagnosed the properness in counselor placement through an analysis of the use of the web forum, and analyzed the practices of the nonsul (essay-type examination) program in order to identify the coping strategies of EBS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for 2008 university entranc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various ways to improve the EBS NSAE lecture program.

Keywords : EBS, NSA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가 공교육을 부실화

하고, 소득 격차에 의한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담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다[1]. 이 중 핵심 과제는 사교육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EBS 수능 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하여 수능 과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 정 회 원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논문접수: 2006년 7월 5일, 심사완료: 2007년 2월 13일

위해 EBS 수능 강의 프로그램 제작 시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능 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능 강의를 제작·방송하고, 방송한 내용이 수능 시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BS는 2004년 4월 1일에 수능 강의 전문 사이트인 EBSi를 오픈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사용자 폭증에 따른 초기 대란의 우려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1만 2천여 명의 접속을 기록하며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능 시험과 연계함으로써 EBS 수능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2][7][8][9][13].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해열제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즉 EBS 수능 강의는 외형상은 공교육이나 또 다른 사교육체제이며, 현장 교사는 'EBS 고등학교'의 사무 보조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6].

그동안 EBS 수능 강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사 시기나 조사 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3][4][5][10][11][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년간 추진되어 온 EBS 수능 강의 사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위해 EBSi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강의 담당 강사와 현장 교원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EBSi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분석

<표 1> EBS 수능 강의 관련 수요자 반응 조사(2004.4~2006.2)

기간	1회[11] 2004.5.6~9(4일)	2회[12] 2004.12.14~24(10일)	3회[10] 2005.2.11~14(4일)	4회[3] 2005.5.24~28(5일)	5회[5] 2005.9.22~29(8일)	6회[4] 2005.12.15~18(4일)
제목	EBS 수능방송 만족도 관련 여론조사	EBS 수능강의 수용 형태 조사	EBS 수능강의 수용자 반응조사	EBS 수능 인터넷 강의 수용자 반응 조사	EBS 수능강의에 대한 학생, 학부모 여론조사	EBS 수능강의에 대한 학부모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	서울 마케팅 리서치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 갤럽	한국 갤럽	한국갤럽
대상	전국 고교생 학부모 1,000명	전국의 고 2, 3학년 학생 1,000명	2006년도 수능 응시자 중 합격자 500명	고 1, 2, 3학년 학생 521명, 학부모 506명	인문계 1,014명, 학부모 1,010명	인문계 자녀를 둔 학부모 1,034명
방법	전화조사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전화조사

EBS 수능 강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EBS 수능 강의와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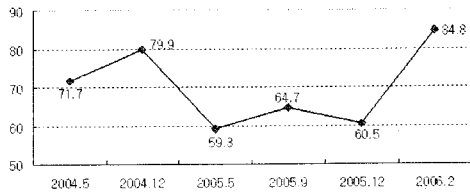
첫째, 이희수 외(2005)는 EBS 수능 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전달, 경쟁력 강화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반 조성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단기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정의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수능 강의 이전과 이후의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 여부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능 강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둘째, 김재춘(2004)는 전국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과목별 EBS 교육 방송의 반영률과 EBS 교육 방송 수능 강의와 교재 관련 제안 및 요구 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은 20% 이하, 교사는 30~40% 정도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는 EBS 수능이 올해 만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2].

셋째, 송기상 외(2005)는 EBS 수능 강의에 대한 사용자별 현황과 실태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공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 콘텐츠의 보급, EBS 수능 방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정책 채택, 과감한 e-러닝 서비스 기법을 도입한 개별화 서비스 채택,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공교육 지원 방안,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우위를 위한 대처 방안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6].

EBS 수능 강의와 관련된 수요자 반응 조사는 <표 1>과 같이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6회가 실시되

었다[3][4][5][10][11][12]. EBS 수능 강의의 활용률은 <그림 1>과 같이 조사 시기와 방법에 따라 그 변동 폭이 매우 달랐다. 그리고 EBS 수능 강의 활용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절감되었고, 수능 시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EBS 수능 강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설문 조사별 수능 강의 활용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 조사를 기초로 하여 EBS 수능 강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진단된 문제점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BSi에 누적된 로그를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EBS 수능 강의 출연 강사와 현장 교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EBSi 이용자 분석

EBS는 지난 2004년 4월 1일에 수능 전문 사이트인 EBSi를 개설하여 서비스해 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EBS 협조를 통해 수능 강의가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3개월 간 EBSi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로그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분석하여 수능 강의에 대한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3.1 강좌 및 회원 현황

수능 강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개설된 강좌 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총 787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2004년에는 292편

이 개설되었으며, 2005년에는 406편이 개설되어 2004년에 비해 39%가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월에서 2월말까지 89편이 개설되었다.

<표 2> 연도별 강좌 개설 현황

		(단위: 편)			
구분		2004 (4.1~12.31)	2005 (1.1~12.31)	2006 (1.1~2.28)	계
매체	인터넷	178	287	46	511
	TV	110	113	43	266
	라디오	4	6	0	10
수준	고급	20	40	0	60
	중급	43	33	0	76
	초급	11	0	46	57
	공통	174	333	43	550
	선택	44	0	0	44
학년	고1	20	46	7	73
	고2	25	34	7	66
	수능	238	320	75	633
	공통	9	6	0	15
계	292	406	89	787	

매체별로는 인터넷 강좌가 511편으로 가장 많았고, TV 강좌는 266편으로 인터넷 강좌의 51.1%를 차지하였다. 초·중·고급 수준별로 구분된 강좌는 193편으로 전체 강좌의 24.5%만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좌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초·중·고급으로 수준을 구분하여 강좌를 제공해야 한다. 학년별로는 고3 학생이나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수능 강좌가 633편으로 전체 강좌의 80.4%를 차지함으로써 내신보다는 수능을 중심으로 강좌가 운영되었다.

<표 3> 연도별 강사 배치 현황

		(단위: 명, 편)			
구분		2004 (4.1~12.31)	2005 (1.1~12.31)	2006 (1.1~2.28)	계
강사 수		212	175	129	516
강좌수		292	406	89	787
강좌당강사수		0.7	0.4	1.4	0.7
강사당강좌수		1.4	2.3	0.7	1.5
외부유출자		4	5	0	9

EBS 수능 강의의 연도별 강사 배치 현황은 <표 3>과 같이 총 516명의 강사가 배치되었다. 2005년에 배치된 강사는 175명으로 2004년 212명에 비해 17.5%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강좌 수는 2004년 292편에서 2005년 406편으로 33.6% 증가하였다. 2005년 강사당 강좌 수는 2004년 1.4편에 비해 1.6배가 증가한 2.3편을 나타내었다. 역으로 강좌당 강사 수는 0.7명에서 0.4명으로 감소

하여 강사 1인당 강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EBS 강사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강사들이 외부 학원으로 유출되었다. 즉, 2004년에는 4명이 유출되었으나, 2005년에는 1명이 증가한 5명이 유출되었다.

신규 가입한 회원 현황은 <표 4>와 같이 219만 명에 달하여, 매년 누적 회원 수가 증가하였다. 신규 가입자 중 학생은 176만 명으로 전체 신규 가입자의 80.6%를 차지하였으며, 학부모도 15만 명이 가입하여 EBS 수능 강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표 4> 연도별 신규 가입자 현황

(단위 : 만 명, %)

신분	2004(4.1~12.31)		2005(1.1~12.31)		2006(1.1~2.28)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학생	104	81.7	39	78.6	13	81.6	176	80.6
학부모	8	6.7	6	7.3	1	6.5	15	6.9
기타	15	11.7	11	14.2	2	11.9	27	12.5
계	128	100	76	100	15	100	219	100

전국 고등학생 대비 누적 회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2005년에는 100만 명으로 전국 고등학생 수 대비 59.2%를 차지하였다. 이는 고등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절반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EBS 수능 강의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전국 고등학생 대비 누적 회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국 고등학생 수	고등학생의 누적 가입자 수	비율
2004	1,746,560	582,927	33.4
2005	1,762,896	1,043,680	59.2

* 전국 고등학생 수 =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 수(2005. KEDI)

최근 3개월 동안 1회 이상 접속한 적이 있는 진성 회원 현황은 <표 6>과 같이 83만 명으로 전체 누적 회원의 37.6%를 차지하였다. 이와 반대로 최근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회원 수는 138만 명으로 누적 회원 수 대비 62.4%를 차지하였다.

<표 6> 진성 회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누적 회원 수	진성 회원 수	누적 회원 대비 비율
계	2,212,625	832,330	37.6

3.2 강좌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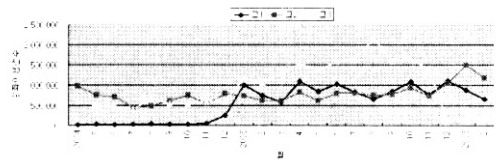
연도별 강좌 이용 현황은 <표 7>과 같이 2005년에는 5,377만 건을 기록하여 2004년 대비 46.2%가 증가하였다. 이는 월 평균 430만 건, 일 평균 14만 건이 사용된 것으로서, 국내 최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로 성장하였다.

<표 7> 연도별 강좌 이용 현황

(단위 : 천건)

구분	2004 (4.1~12.31)	2005 (1.1~12.31)	2006 (1.1~2.28)	계
강좌이용회트수	36,789	53,773	8,274	98,836
월평균회트수	4,088	4,481	4,137	
강좌당회트수	121	132	93	123
누적회원수	1,303	2,058	2,213	
진성회원수			832	

고등학생의 강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고1, 고2보다는 고3의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수능 강의를 시작한 2004년에는 수능을 앞둔 고3보다는 고2의 활용이 높았으며, 특히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시행되는 10월과 12월에는 고2의 히트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5년의 고3 히트 수는 월평균 100만 건 이상으로 2004년의 월평균 40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름 방학 기간인 8월에는 160만 건 이상으로 폭증하였으나,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현저하게 떨어져 그 기복이 심하였다.



<그림 2> 고등학생의 강좌 이용 추이

3.3 게시판 이용 현황

각종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142만 건에 달하였다. 707만 건에 이르는 질문에 대해 상담원이 응답한 건수는 70만 건으로 99%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게시판에 질문을 올린 사람은 총 25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1인당 3개의 글을 올린 것과 같다. 이에 비해 응답 글을 올린 사람은 4,791명으로 1인당 149개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질문자보다 50배 많은 글을 올린 것이다. 전체 글의 조회 수는 1천만 건에 달하여 게시글 1건당

평균 7회 정도를 조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 현황

(단위 : 건, %, 명)

영역	글 수				게시자당 글수		조회수	글당 평균 조회수
	질문	응답		질문	응답			
		응답 수	질문응답률					
계	707,242	715,358	700,994	99	3	149	10,388,637	7

특정 질문에 대한 응답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경우가 54만 건으로 전체 응답의 76.1%를 차지하였고 무응답은 6천여 건으로 0.9%에 달하였다. 특히 3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경우는 25만 건으로 전체 응답의 36%를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

<표 9>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

(단위 : 건, %)

영역	1일					2일			3일	3일 초과	무응답	계
	~3시간	3~6	6~12	12~24	소계	24~36	36~48	소계				
계	254,923 (36.0)	66,403 (9.4)	110,371 (15.6)	106,725 (15.1)	538,422 (76.1)	35,624 (5.0)	26,413 (3.7)	62,037 (8.8)	24,933 (3.5)	75,604 (10.7)	6,246 (0.9)	707,242 (100.0)

에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논술 이용 현황

연도별 논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2004년에는 11만 건, 2005년에는 35만 건으로 2.3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렇게 2005년의 논술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2004년 12월부터 교양 강좌가 추가되고, 2005년 9월부터 논술방, 독서방, 번역방 서비스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 모집과 관련된 논술이 2004년 6,519건에서 91,236건으로 13배 이상 폭증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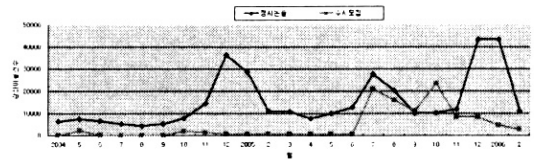
<표 10> 연도별 논술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교양 강좌	정시 논술	수시 모집	논술	독서	번역	계
2004	5,951	93,995	6,519				106,465
2005	50,122	204,521	91,236	6,660	334	1,394	354,267
2006	11,954	54,348	7,545	6,328	205	826	81,206
계	68,027	352,864	105,300	12,988	539	2,220	541,938

논술 서비스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정시 논술'과 '수시 모집'에 대한 월별 이용 추이는 <그

림 3>과 같이 정시 논술 사용자는 12월과 1월에 폭주하였으며, 2005년에는 수시 모집 시기인 7월과 10월, 12월과 1월에 사용자가 폭주하였다. 2005년 하반기 수시 모집 시기인 10월에는 수시 모집만 증가하고 정시 논술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3> 월별 논술 이용 추이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용자 대부분이 평상시에는 논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많지 않지만, 논술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폭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논술 능력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논술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강좌 개설과 함께 논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독서 지도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EBSi 개선 방안

EBSi에서 제공하는 수능 강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수능 강의에 대한 지속 여부이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학교 현장 교사가 EBS 수능 강의의 사무 보조원으로 전락하고 있다[6]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정부에서는 EBS 수능 강의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음을 내세워 EBS 수능 서비스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EBS 수능 강의에 대한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고, EBS 수능 강의의 개선 방안을 EBS 강사와 현장 교사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4.1 EBS 수능 강의의 지속 여부

강좌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설문조사에 의해 분석하기보다는 실제 이용자 현황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BS에 탑재된 수능 강의를 유료화할 경우 실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추산하였다.

우선 민간 사이트의 강의당 평균 수강료를 계산하기 위해 순위 사이트인 랭키닷컴을 이용하여 온라인 중·고등교육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상위 5위 안에 속하는 온라인 입시 학원 중 비정액제로 운영하는 3개 사의 영역별 수강료를 분석하였다. 50분 단위의 강의당 평균 수강료는 <표 11>과 같이 2,642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11> 사설 온라인 사이트의 강의당 수강료 현황

(단위 : 원)

구분	A사	B사	C사	평균
강의당 수강료	2,771	2,943	2,214	2,642

<표 11>에서 산출된 사설 온라인 사이트의 강의당 수강료를 기준으로 EBS 수능의 강의당 수강료를 추산한 결과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12> 강의당 수강료 추산액

(단위 : 개, 명, 억원)

구분	강의 수	1회 이상 접속자		2회 이상 접속자	
		수강자 수	추산액	수강자 수	추산액
2004	5,366	16,325,649	431	4,949,834	131
2005	13,109	26,694,205	705	8,252,080	218
2006	13,162	4,571,621	121	1,229,339	32
계	31,637	47,591,475	1,257	14,431,253	381

특정 강좌 내에 있는 강의를 1회 이상 접속한 수강자 수를 대상으로 강의당 수강료를 지불하게 할 경우 1,257억 원이 산출되었다. 이것은 수강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맛보기 형태로 접속한 경우라도 강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회 이상 접속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수강료는 381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EBS 수능 강의는 최소 381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대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EBSi 활성화 방안

EBSi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BS 수능 강의 출연 강사 2명(TV 강사, 인터넷 강사)과 현장 교원 3명(서울, 강원, 전남)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강사의 브랜드화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 시켜야 한다. 현재 출연 강사의 경우, 공모제를 통해 합격한 강사를 일정한 수습 기간 없이 바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모에 합격한 강사라도 감수·검수 교사 등의 수습 과정을 도입하고, 과목별 복수 강사를 두어 경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강사별 집필진이나 상담원을 배치하여 강사별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수 강사가 사설 시장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사를 배치할 때에 강사의 능력과 매체의 특성과 상관없이 학원 강사라는 이유로 TV 강좌에는 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강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강사의 능력과 매체 특성에 맞게 강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 담임제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BSi의 학습관리시스템만으로 학습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인트 등급제 등을 도입하여 우수 이용자나 소외지역의 학생, 학적이 없는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담임을 배정하여 1:1 맞춤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사이버 담임은 해당 학생의 학습 이력을 모두 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 수준에 적합한 강사를 안내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추천해 줄 수 있다. 또한 사이버담임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임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단계별 학습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즉, 학습 관리에 필요한 단계를 진단, 수강, 평가, 보충·심화, 실전, 확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학생과 상담 교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과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수준이 분리되지 않은 공통 수준으로 분리된 강좌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학생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준에 따라 초·중·고급으로 세분화하고,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EBS 수능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1과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초급 강좌와 내신 영역의 강좌를 크게 늘려야 한다. 또한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여 대학별 전형 일정이나 전형 방법에 따라 시기적절한 강좌를 제공해야 하며, 인기 있는 특정 영역에 치우치기보다는 소수가 선택할지라도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강좌를 개설하여 공공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첫째, 내신 영역에서는 초급과 고급 수준의 강좌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초급 강좌와 학업 성취도 높은 학생을 위한 고급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TV 강좌의 채널 한계로 강좌 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인터넷 강좌는 시·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적으므로 내신 강좌의 인터넷 강좌 수를 증가시켜 2008년 새 대입제도에 따른 내신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고1 학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초급 수준부터 고급 수준까지, 영역별로 고르게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넷째, 우수 강사를 유지·확보하고, 진성 회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강사 수당은 강사의 능력이나 강좌의 인기도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강사의 인센티브 또한 모든 강사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EBS 출신의 우수 강사들이 외부 사설 학원으로 유출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강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TV 강좌는 현직 교원 출신 강사로만 배치하는 것은 매체 특성에 따른 강사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학원 강사일지라도 TV 매체에 적합한 강사라면 TV 강좌의 강사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강좌당 강사 수를 0.6명에서 1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강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우수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투명하고 합리적인 강사 채용, 강사의 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제도, 강사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학급 운영 및 상담원 운영 등 유명 강사가 다른 사설 학원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회원, 즉 휴면 회원의 수는 138만 명으로 누적 회원 수 대비 62.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휴면 회원을 진성 회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의 EBSi의 아이디 정책은 특정인이 2회 이상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회원 아이디의 삭제와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내신 강화를 위해 내신 강좌를 크게 증설해야 한다. EBS 수능 강의가 수능을 앞둔 고3이나 재수생뿐만 아니라 고1이나 예비 고등학생인 중학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영역을 분석하여 중급 이상의 강좌뿐만 아니라 초급 수준이나 기초 수준의 강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클릭이 아닌 학습을 위한 클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는 동영상 강좌보다는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고3의 수능 강의 이용율이 떨어지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예비 고등학생이나 예비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 3학생들의 강좌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겨울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예비 과정이나 내신 영역에 대한 요약 강좌를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중 3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강좌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강좌 이용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1의 강좌 이용 건수가 줄어드는 학기 초나 여름 방학 기간에 고1을 위한 특집 강좌를 개설하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고3을 위한 대학 생활 안내나 직업 교육, 진로와 적성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꾸준히 이끌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상담 현황을 바탕으로 한 상담원 배치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상담 현황을 분석하여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상담 방법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시자당 글 수가 200건 이상인 외국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수학 영역 등에는 상담원을 보다 많이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질의응답이 많은 일요일과 주말에 상담원이 집중 배치되어 빠른 시간 내

에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낮보다는 밤 시간대에 더 많은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밤 시간대에 상담원을 집중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시간대별로 응답률의 차이가 최대 1% 밖에 되지 않지만 최고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응답률이 낮은 점심 시간대에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여 응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기별로 집중되는 상담 내용을 FAQ로 정리하여 EBSi 사이트에 탑재함으로써 사용자의 전화 상담 건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논술 서비스를 시험 시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 시에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논술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평상시에는 논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많지 않지만, 논술 시험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많은 이용자가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논술 능력은 논술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짧은 기간의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논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시나 수시 논술이 시작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독서와 번역과 같은 다양한 논술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여덟째, 다양한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인트 적립제, 포인트 차감제, 포인트 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 첫째, 포인트 적립제는 신규 가입, 질의응답, 답변의 우수성, 추천 및 평가 활동, 불량 게시물 및 오류 신고, 지식 및 자료 공유 등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화하여 적립시키는 제도로써 긍정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포인트 차감제는 잘못된 답변이나 불량 게시물을 올릴 경우, 쓸데없이 글을 써다 삭제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응답이 신속하지 못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함으로써 응답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고, 부정적인 활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포인트 등급제는 각종 학습 활동이나 상담활동을 통해 얻은 포인트 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제한된 인원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이버 담임제

나 1:1 논술 지도, 첨삭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콘텐츠를 학습 요소 단위로 분절시켜 교실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교원의 심층 면접 결과, EBS 수능 강의를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으므로 짧은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0분 단위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기보다는 소주제별로 구분하여 20분 이내로 제작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각각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식 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출된 학습 요소에 따라 동영상을 쪼개거나 인덱스를 부여하고, 각각의 학습 요소에 대한 설명 자료를 교육용 콘텐츠 메타데이터인 KEM(Korean Educational Metadata)과 같은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에 의해 설명됨으로써 교사나 학생이 원하는 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설문 조사는 설문 시기나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BS 수능 강의 시스템인 EBSi의 로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6년 2월까지 787편의 강좌가 개설되어 100만 명이 넘는 고등학생이 활용하였으며, 사설 온라인 사이트의 수강료를 토대로 EBS 수능 강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최소 381억 원 이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 강의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수 강사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강사의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EBS 수능 강의는 강사 중심의 동영상 강의를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사 공모제를 상설화시키고, 수급 강사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강사를 중심으로 한 튜터링과 팀제 운영으로 강사의 브

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과별 강사료 지급을 통해 우수 강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강의 청취뿐만 아니라 평가, 상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학습 상담부터 입시 상담까지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 담임제 운영이 필요하다. 사이버 담임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우수 회원을 선발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체 특성을 고려한 강사 배치와 학생 수준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TV 강사는 현장 교사만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매체의 특성과 강사의 자질을 고려하여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2005년 이후에 개설된 강의는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강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넷째, 2008 새 대입 제도에는 내신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내신 향상을 위해 고1뿐만 아니라 예비 고등학생인 중3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기초 과정 운영과 개념 중심의 강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교사가 개발된 강의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게 하려면, 강의를 학습 요소별로 분절시키고,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질문은 주말이나 휴일에 집중되거나, 밤 10시가 넘은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대에 상담 교사를 집중 배치하고, 자주 질문하는 내용은 FAQ 등록하여 상담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EBS 수능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학교 수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 억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Online] Available: <http://www.moe.go.kr>.
- [2] 김재춘(2004).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육방송의 반영 정도 연구. 한국교육방송공사
- [3] 리서치 앤 리서치(2004). EBS 수능 방송 만족도 관련 여론 조사 보고서.
- [4]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리서치(2005). EBS 수능 강의 수용자 반응 조사 결과 보고서.
- [5] 서울 마케팅 리서치(2004). EBS 수능 강의 수용 형태 조사보고서.
- [6] 송기상 외(2005). EBS 수능강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방송공사.
- [7] 오마이뉴스(2004). 나는 'EBS 고등학교' 선생이 아닙니다(2004.4.9). [Online] Available: <http://www.ohmynews.com>.
- [8] 이희수 외(2004). e-러닝 활성화를 위한 EBS 수능강의 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9] 이희수 외(2005). EBS 수능강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방송공사.
- [10]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05 a). EBS 수능 인터넷 강의 수용자 반응 조사 보고서.
- [11]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05 b). EBS 수능 강의에 대한 학생, 학부모 여론 조사 보고서.
- [12]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05 b). EBS 수능 강의에 대한 학부모 여론 조사 보고서.
- [13] 한국교육방송공사(2005). 2004년도 EBS 인터넷 강의 사업 실적 보고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정 영 식



1996 춘천교육대학교 수학교육학과 (교육학학사)

2001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육학석사)

2004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박사)
2004~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러닝팀장)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원격교육, 표준화 기술
E-Mail: nurunso@kedi.re.kr